

금융권은 지금 '디지털화' 바람~

광주은행 스마트금융점포 대폭 확대

금융권이 디지털시대에 발맞춰 태블릿 PC를 이용해 업무를 보는 '페이퍼리스(paperless)'가 확대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영업점 업무가 '페이퍼리스'가 확대되면서 종이 서류가 사라지고 있다. 시중은행은 간편함이 보편화된 현대사회에서 디지털 기기를 통해 중복으로 작성해야 하는 항목과 서명을 최대한 간소화해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고객들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방은행에서 가장 먼저페이퍼리스를 시작한 광주은행은 지난해부터 시스템 도입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2월부터 16개 지점을 시작으로 이달부터 전 영업점에서 각종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은행들이 종이 없는 창구로 속속 변신하는 것은 디지털금융과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와 무관하지 않다.

간편함이 보편화된 현대사회에서 디지털 기기를 통해 중복으로 작성해야 하는 항목 및 서명을 최대한 간소화해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편의성을 대폭 끌어올리는 것이다.

전자서식을 활용하게 되면 고객과 직원 모두 윈윈하는 결과도 가져온다. 직원들의 고객 응대와 업무 속도는 빨라지고, 고객들은 보다 쉽고 효율적인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종이를 사용하지 않아 문서 분실이나 범죄 악용 위험도 사라져 고객 정보 보호에도 용이하다.

전북은행도 이달부터 전 영업점에 디지털 창구화 했다. 지난 2월부터 일부 영업점의 시범운영을 통해 고객 및 직원 혼선을 최대한 줄였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광주은행 영업점에서 고객이 태블릿PC를 이용해 업무를 보고있다.

'종이 없는 창구' 늘려 고객 편의성 증대 태블릿PC 이용 '페이퍼리스' 도입 가속 불필요 절차 줄이고 고객 정보보호 강화

한 줄였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대구은행도 이달부터 페이퍼리스 사무환경 정착 사업을 시작했다.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객 편의성 향상과 고객 응대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페이퍼리스가 적용될 문서는 예금(신탁) 거래 신청서 등 수신문서 70여종과 용자 상

담 및 신청서 등 여신문서 25종을 비롯해 외환, 카드 전표 등 121종이 전자문서화된다.

대구은행은 분석 및 설계와 구축, 테스트 안정화 작업 등 9개월여 개발을 거쳐 내년 초부터 전 영업점에서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의 종이 없는 창구 바람은 지난 2015년부터 시작했다. 당시 일부 은행에서

만 가능했지만 2년여 만에 전 은행에서 상용화하고 있는 것이다.

전 은행권 중 가장 먼저 디지털 창구를 도입한 곳은 기업은행이다. 지난 2015년 말 태블릿PC로 전자신청서를 작성하는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해 현재 모든 창구에서 100% 디지털화를 실현 중이다.

신한은행도 지난해부터 700여개 영업점을 디지털 창구로 운영 중이며, 최근 모바일 뱅킹 '신한 쏘'에서 쏘기 서비스를 출시해 태블릿PC를 활용한 상담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쏘기 서비스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상품에 대해 은행 직원이 상담 콘텐츠 관리 포털에 탑재된 1,000여 가지 상품을 태블릿PC에 띄워 고객과 내용을 공유하면서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현재 전국 50여개 영업점에서 디지털 창구를 시범운영 중인 국민은행은 올해 전 영업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KEB하나은행도 올해 안에 전 영업점을 스마트창구로 전환할 계획이다. 종이 없애고 업무 전 과정을 디지털화함으로써 고객 시간을 아끼고 정보를 지키는 그린뱅크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광주은행이 올해 페이퍼리스 도입에 사활을 건 것은 수도권보다 다소 디지털화가 느린 지역 고객들의 편의성과 비대면 서비스의 진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며 "종이 없는 사회는 정부 차원에서 활성화하고 있는 만큼 은행 업무 효율성이나 비용 절감 등 장점이 크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JB금융지주, 증권사 인수 나설까

지방금융지사 중 유일 증권사 없어



최근 잇따른 자회사 편입으로 몸집 불리기에 나선 JB금융지주가 증권사 인수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JB금융지주(회장 김한)가 지방은행을 모태로 합병(M&A)에 적극 나서며 세를 확장, 탄탄한 기반을 다진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있어 금융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JB금융은 지주회사 가운데 유일하게 증권사가 없고, 사업 다각화와 시너지효과 등을 위해 증권사 인수의 필요성이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무엇보다 금융지주 수익의 90% 이상이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에 쏠리고 있어 수익성 다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고, 비은행부문의 수익성이 단점으로 부각됐다.

JB금융지주는 광주은행, JB자산운용, JB우리캐피탈, 캄보디아 프놈펜상업은행 등의 자회사를 보유한 가운데 전북은행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두 M&A로 편입에 성공했다. 현재 JB우리캐피탈 등도 꾸준한 실적 상승세를 보이며 당초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며 새로운 수익모델 개발에 나서고 있다.

광주은행도 인수이후 금융지주에서 서서히 안정하며 전북은행과 함께 호남은 물론, 수도권과 충청에서 '쌍끌이 소매금융'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캄보디아 프놈펜상업은행도 현지 적응화를 끝내고 전산시스템을 최첨단으로 교체한 후 동남아 시장의 교두보 역할을 할 준비를 마쳤다. 캄보디아 자국민 뿐만 아니라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등 인근 국가는 물론 캄보디아에 체류하는 외국인, 외국계기업 등의 이용률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JB금융은 호남권보다는 수도권 영업망 확장과 고객 편의, 시너지효과를 위해 증권사로 눈을 돌리고 나섰다.

서울 등 수도권에 50여개(광주은행 포함) 지점을 운영하고 있어 증권사를 인수할 경우 향후 영업망 확장과 함께 고객 홍보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서미애 기자



전남신보 '경영자문단 서비스'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최근 재단 6개 거점지점(순천, 목포, 여수, 광양, 나주, 해남)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자문단 서비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수도권 시장에 안착한 광주은행

2년새 수도권 여신잔액 2.6배 수신잔액 1.6배 ↑

지방은행 중 수도권 진출 전략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온 JB금융지주 광주은행의 수도권 영입이 안정권에 접어들었다.

2년새 수도권의 여신 잔액은 2.6배, 수신 잔액은 1.6배 늘었고 전체 여신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말 기준 35%, 전체 수신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31%로 나타났다.

18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광주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여신 잔액은 18조3,59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5년 14조4,086억원 대비 27.4%(3조9,511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수신 잔액 역시 20조6,06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2015년 대비 22.6%(3조8,034억원) 늘어난 수치다.

전체 여수신이 2년새 큰 폭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광주은행의 수도권 지역 여수신액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014년 광주은행의 수도권 지점은 4개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19개로 4배 이상 상승세를 보였다.

지역 기반에서 벗어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수도권 전략을 펼친 지 3년 만에 큰 폭의 성장을 이룬 것이다.

이는 전체 여수신액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더욱 상세하게 나타난다. 지난해 2015년 말 전체 여신액은 14조4,086억원 중 수도권의 여신액은 2조4,690억원으로 17.1%였다. 지난해 2016년 말에는 수도권 여신액이 4조8,306억원으로 늘면서 전체의 27%로 늘었고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 여신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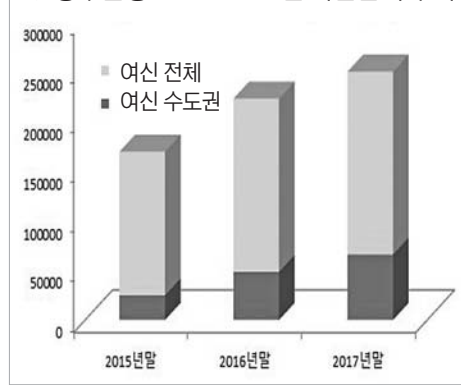
은 6조5,856억원으로 전체의 35.8%까지 증가했다.

수신액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말 기준 수도권 지역의 수신액은 3조 9,279억원, 2016년 말 5조5,753억원, 지난해 말 6조4,869억원으로 각각 23.3%, 28.1%, 31.4%로 꾸준히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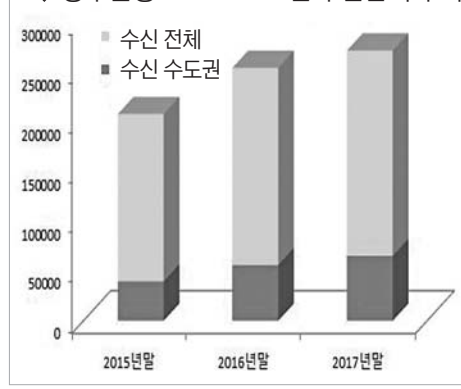
광주은행 관계자는 "전체 여수신액 중 수도권의 비중의 상향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수도권지역은 안정권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수도권 지역에 점포를 늘리는 등의 계획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점포를 늘리기 보다 기존 점포들을 유지하면서 한 번 더 도약을 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서미애 기자

◇ 광주은행 2015~2017년 여신잔액 추이



◇ 광주은행 2015~2017년 수신잔액 추이



전남신보, 소기업·상공인 지원

신한은행과 금융지원 MOU...2억 특별출연

전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형천)은 18일 신한은행과 '전남도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한 '2018 신한은행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시행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신한은행이 특별출연한 2억원을 재원으로 전남신보는 24억원을 도내 소상공인 등에게 보증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전남에 소재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재단 또는 신한은행의 추천을 받은 기업이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최고 1억원이며, 보증요율은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연 1%이다. 또한 이번 협약 보증은 연간 3%의 이자를 지원하는 전라남도 소상공인 자금 등과 연계되어 금리 부담을 대폭 낮춰 지원 된다. /서미애 기자

누구나 쉽게 바르는 황토 벽지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살아 숨쉬는 고퍼텍스 특허공법 천연황토 코팅제!!

▶ 용도 ... 어린이집 · 유치원 · 한옥 내 · 외부 · 방바닥 · 전원주택 · 경로당 · 아파트 · 펜션 · 찜질방 · 카페 · 휴식 외벽 · 목재 · 양어장 · 물탱크 · 기타 인테리어를 요하는 곳
비가 오면 축축하거나 물이 새어 곰팡이 생기는 모든 곳
기존 황토미장된 곳이나 도배지를 뜯지 않고 위에 시공을 요하는 모든 곳
...비염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방이나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 친환경성 천연황토, 게르마늄, 솔잎, 편백나무, 약쑥, 참숯, 은행잎등 건강에 좋은재료를 엄선하여 고분말로 만들어 술향기나는 친환경 웰빙제품입니다.

▶ 색도조절제 화이트(600g) : 원하는 색상 조절가능

자가 황토 제품과 비교 절대 불가!!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시중에 검증 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태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 업체입니다.

전화 문의시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구입시 시의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드림코리아
DREAM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korea.biz